

# 계절과 관련된 문장표현 익히기

## <봄>

- 어느새 봄이 되었어요. 어제 우연히 뒷 마당에 가봤는데 노란 개나리들이 수줍게 얼굴을 내밀기 시작했더라고요. 그 옆에 있었던 목련도 화려하게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어요. 그래서인지 밖에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 노란 개나리가 활짝 피어났어요. 겨울이 아무리 봄을 못오게 막아도 산과 들에는 벌써 초록 기운이 활짝 피어나 있어요.
- 나는 봄이 좋아요. 왜냐하면 꽃이 피어나는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꽃망울이 터질 때 나는 소리는 마치 우리집 어항에 살고 있는 물고기가 입을 뻐끔거리며 밥을 달라고 하는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있어요.

## <여름>

- 요즘은 하루도 빠짐없이 비가 내려요. 어제는 번개와 천둥까지 쳐서 조금 무서웠어요. 그렇지만 비가 온 덕분에 오늘은 덥지 않아요.
- 벌써 푸른 바다가 그리운 여름이 왔어요. 나무들은 하루가 다르게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어요.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아 기분이 좋아요.

## <가을>

- 단풍이 들고 낙엽이 하나 둘 떨어지고 있어요. 온 산이 오색빛으로 물들기 시작했어요. 울긋불긋 단풍이 물든 가을산은 마치 수채화 같아요. (또는 내가 스케치북에 그린 그림 같아요.)
- 아직도 모기한테 물린 자국들이 선명하게 남아 있는데 아침 저녁으로는 긴 옷을 입지 않으면 चु다는 생각이 들어요.
- 가을이 되면 우리가족은 사과농장에 잘 익은 사과를 따러 가요.
- 추수감사절에는 가족과 함께 맛있는 저녁을 먹어요. 칠면조 구이, 햄, 호박파이, 피칸파이, 그리고 옥수수 등등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맛있게 먹어요.

<겨울>

- 겨울이 왔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밖을 내다 보아요. 혹시 눈이 오지 않을까 해서요.
- 어제는 눈이 세상을 하얗게 뒤덮었어요. 밖으로 나가 보니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나와 놀고 있었어요.
- 겨울에는 지붕 아래에 달려 있는 고드름을 볼 수 있어 좋아요. 나는 가끔 형과 고드름을 가지고 칼싸움을 해요. 나는 칼싸움을 할 때마다 용사가 된 기분이예요.

-독서글짓기대회 수상작

봄이 오면 우선 바람이 달라진다. 겨울에 부는 바람은 차갑고 건조하고 눈을 아프게 했는데 3월이 되면 학교 가는 길에 내볼에 와 닿는 바람이 어느새 친절한 태도로 변해있다. 부드럽고 물기를 머금은 바람이다.

봄이 오면 그래서 비가 자주 온다. 한꺼번에 많이 오지는 않고 땅을 적실 정도로 축축이 오는 비가 많다. 그래서 봄이 오면 땅이 달라진다. 시골에 가면 땅이 훨씬 부드러워졌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다. 차갑고 딱딱하고 풀들은 말라있던 땅이 조금씩 부풀어 오르는 것 같다. 두더지가 지나간 자리는 땅이 들떠있어서 밟으면 푹 꺼진다. 여기저기 솟이 돋아나고 냉이나 질경이도 있어서 땅을 파보면 뿌리가 길게 뻗어있다. 추운 겨울에도 죽지 않고 부지런히 싹을 밀어올린 풀들이 대단하게 느껴진다. 풀 사이로 작은 벌레들도 있고 움직임이 빠르다.

도시에서도 겨울에는 보이지 않던 개미들이 하나 둘 보이기 시작한다. 어제 학교로 가는 골목길에서 작은 콩벌레를 보았는데 내 발소리에 놀랐는지 몸을 재빨리 공처럼 또르르 말았다. 골목길에는 민들레도 노랗게 피어있다. 봄이 오면 많은 꽃이 피어나고 사람들은 꽃구경을 가서 꽃처럼 웃으며 '하하호호' 사진을 찍는다.

=====

봄은 따뜻한 계절,  
싱그러운 꽃들이 피어나는 계절,  
우리들,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계절.

여름은 시원한 계절,  
시원한 계곡물에 발 담그는 계절,  
우리들, 설레는 마음으로 놀러가는 계절.

가을은 색깔의 계절,  
빠알간 물이 들고, 노오란 물이 드는 계절,  
우리들, 낙엽 맞으며 걷는 계절.

겨울은 눈의 계절,  
맑고 하얀 눈 내리면 우리 신나는 계절,  
우리들, 눈사람 만들어 노는 계절.

사계절 모두 즐거운 계절.

---

우리 대한민국은 사계절이 예쁩니다.

봄에는 아름다운 꽃이 핍니다.  
여름에는 푸른 바다가 있습니다.  
가을에는 단풍잎이 어여쁩니다.  
겨울에는 하얀 눈이 내립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계절마다 전통음식이 있습니다.

봄에는 갯가지 나물을 한 그릇에 모은 비빔밥  
여름에는 몸보신에 좋은 백숙  
가을에는 온가족이 빗어먹는 송편  
겨울에는 나이를 한 살 더 먹는 떡국

아름다운 사계절과  
맛있는 전통음식이 있는  
우리나라는 자랑스런 대한민국!